

대자연 사랑

THE NATURE LOVE

제13호
2022년 3월

SPRING

자연과 조화되는 삶
자연과 인간은 하나



잡지 '대자연사랑'은 일상에서 생명존중, 자연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알아가야 할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 2016년 부터 3월과 9월,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잡지 '대자연사랑'은 대자연사랑실천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원6안길 23
전 화 02-732-1359
팩 스 02-732-1357
이 메 일 inlakorea@daum.net
홈페이지 <http://the-inla.or.kr>



콩잉크로 제작되었습니다.

대자연사랑실천본부

국제대자연사랑실천본부의 한국 지부로
2011년 3월 환경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지구촌 실현을 위해
생명존중과 자연사랑을 실천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Spring



이사장 인사말	
• 코로나의 역습	04
법인소개	
• 대자연사랑실천본부를 소개합니다	05
• 사업소개	06
• 법인연혁	07
대자연문화	
• 숲에서 힐링하고, 과학으로 지식 쌓고	08
• 환경문제와 생활 속의 작은 실천	10
• 쌍북커피숍 셰프의 단상	12
자연과 환경	
• 다시 내디더보는 한걸음	08
• 갑자기 모여서 오히려 즐거웠던 9월 공평향의 추억	08
대자연라이프	
• 대자연법상 죽순과 죽순요리	20
• 대자연차생활 천산설연	26
• 대자연산책 환경을 생각하게 해준 영화를 소개합니다	28
• 대자연갤러리	32
• 대자연스ם 대자연사랑	32



대자연칼럼	
•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48
대자연이슈	
• 세계는 지금	52
대자연파트너	
• 푸른차문화연구원	54
News	
• 본부소식 · 지부 및 클럽소식 · 인물동정	58
• 회원알림	60

발행정보 통권 제13호 발행일 2022년 3월 31일 발행인 변정환 편집인 이광조
발행처 사단법인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원6안길 23 연락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전화 02-732-1359 팩스 02-732-1357 홈페이지 <http://the-inla.or.kr> 이메일 inlakorea@daum.com 디자인 삼한 인쇄 신홍인쇄



이사장
변 정 환

대구한의대학교 설립인
현대대구한의대학교 명예총장
현재한한의원 원장

코로나19가 던진 화두

코로나의 역습이 그간 우리의 삶을 규정했던 패러다임마저 크게 흔들
어 놓았습니다. 인류 사회 전체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며, 이미 많은
게 변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교훈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대로 대
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욕구가 빚어낸 개발과 그 결과로 겪게 되는 재난의 연결고리
원점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의학계는 역병의 원인을 인간의
무분별한 영역 확대가 부른 생태계 질서 파괴에서 찾고 있습니다. 가
뭄·홍수·산불·폭염 등 이전에는 없었던 이상 현상은 과도한 인간의
욕구가 낳은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반드시 악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
운 패러다임을 낳기도 합니다. 어쩌면 시대 변화를 불러온 뉴노멀(New
Normal)의 창시자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을 강타했던
페스트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남미
정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천연두는 당시 구대륙의 교환 화폐였던 금
은의 대량 공급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화폐가 증가되
었고 그것은 다시 물가 상승과 상업 발전을 통해 자본주의의 씨앗이 되
었으며, 이렇게 초래된 풍요의 시대는 시민정신과 계몽사상으로 연결되
어 프랑스혁명과 같은 시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충격이나 위기가 전화위복이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동반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가 인간에게 던진 강력한 화두는, 자연을 파괴해가며 미래를
당겨쓴 현재는 결코 참다운 행복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류
는 자연과의 조화, 미래를 위한 배려와 대자연에 대한 겸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
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단체 회원들이 대자연 사랑의 가치를 치켜들
고 앞장서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회원 여러
분의 보다 적극적인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V I S I O N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세상

Mission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교육, 학술, 환경, 문화, 봉사를 통해
생명존중, 자연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연과 어우러진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업소개

INTRODUCTION

대자연사랑 교육

- 대자연교육센터 설립
- 녹색환경교실 운영
- 자연환경탐방/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대자연사랑 캠프 운영
- 채식요리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 비건원데이쿠킹클래스 운영

대자연사랑 문화사업

- 대자연사랑 도서/음악제작
- 대자연행복체조/노래보급
- 대자연사랑축제 개최

01

생명존중, 자연사랑에 대한 학술활동 및 정책연구

- 조상들의 대자연사랑 문화 연구
-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방안 '그린라이프' 연구
- 대자연사랑 학술 세미나 개최
- 채식문화활성화포럼 개최

02

대자연사랑 교육

- 대자연교육센터 설립
- 녹색환경교실 운영
- 자연환경탐방/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대자연사랑 캠프 운영
- 채식요리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 비건원데이쿠킹클래스 운영

03

자연보존활동 및 캠페인

-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사업
- 친환경 채식문화 홍보
- 자연사랑 캠페인

04

대자연사랑 문화사업

- 대자연사랑 도서/음악제작
- 대자연행복체조/노래보급
- 대자연사랑축제 개최

05

대자연사랑 나눔사업

- 지역 봉사 활동
- 재능 기부 활동

법인연혁

HISTORY

2008

- 창립 발기인 대회

2011

- 창립 총회
- 대자연사랑실천본부 허가 (환경부 제398호)
- 대도학회 창립
- 중국 허얼빈 지부 창립
- 서울지부 창립
- 가수회 창립
- 학근회 창립
- 대구지부 창립

2012

- 글로벌코리아 창립
- 대자연사랑 청년단 창립
- 새마음회 창립
- 정가회 창립
- 대자연사랑청년단 캠프
- 뉴욕지부 창립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승인 (환경부 제158호)
- 대자연사랑출발한마당대회
- 통일회 창립
- 자연의 숨결 I 음반 제작·발매

2013

- 대자연사랑청년단 캠프
-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기획재정부)
- 경기지부 창립
- 대한민국지키기운동대회 공동주최

2014

- 대자연사랑 청년단 캠프
- 대자연사랑 한마음대회
- 전북지부 창립
- 부산지부 창립
- 자연의 숨결 II 음반 제작·발매
- 세계청년대자연사랑축제 개최 (대구 EXCO)
- 경북식품박람회 채식요리경연대회 주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 경남지부 창립 수상실적-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

2015

- 대구지부 대구한의대학교 '자연사랑' 동아리 창립
- 대자연사랑본서트
- 대자연사랑 학술 강연회
- 대자연 행복체조 보급 (경남지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2016

- 국제본부 대자연문화세계 탐방
- 대자연사랑 청년단 캠프
- 대구지부·대구한의대학교 '자연사랑' 동아리 그린캠퍼스 사업

2017

-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채식약선전시관 주관 (대구 EXCO)
- 대자연청년단 여름 환경캠프 '자연공감'
- 채식문화 활성화 포럼 개최 (대구 테크노파크)
- 대자연사랑 임직원 워크숍
- '내추럴에코' 클럽 창립

2018

- '내추럴에코' 창립 공연
- 베지닥터 MOU 체결
- '대자연사랑산악회' 클럽 창립
- 대자연사랑 편집위원 워크숍
- 채식요리지도사 민간 자격증 개설 (2018-003585호)
- 채식요리지도사 2급 교육과정 운영 (대구 동아요리학원 서울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직원연수
- 대자연사랑 여름캠프 (비슬산 자연휴양림)
- 채식문화 활성화 포럼 (수성대학교)
- '그린엔젤' 클럽 창립

2019

- 채식요리지도사 2급 교육과정 운영 (대구 동아요리학원)
- 대자연사랑 여름캠프 (충남 금산군)
- 비건원데이쿠킹클래스 운영 (대구 동아요리학원)
- 채식문화 활성화 포럼 (대구한의대학교)
- 채식요리지도사 1급 교육과정 운영 (대구 동아요리학원)

2020

- 비건원데이쿠킹클래스 운영 (대구 동아요리학원)
- '채식사랑' 동호회 창립
- 대자연사랑 여름캠프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 대자연사랑 편집위원 워크숍

2021

- 대자연사랑 사진 공모전 DHU문화콘텐츠허브 MOU체결
- 대자연사랑 숲체험캠프 (국립대전습지·국립중앙과학관)

2021 대자연사랑 숲체험 캠프

숲에서 힐링하고, 과학으로 지식 쌓고

매년 청소년캠프가 끝나면 실시했던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액티비티 활동을 올해는 확대하여 구성하고자 바다가 있는 영덕으로 본부 임원들이 사전답사까지 마쳤지만 11월초 코로나 상황이 확대되어 당초 준비했던 1박2일 캠프를 당일치기 숲체험 캠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기대했던 활동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컸으나,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만큼 더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3일 국립대전숲체원과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떠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21 대자연사랑 숲체험캠프

남들보다 더 'Slow' 해진 하루

| 글 김문수 그린엔젤 학생회장

“저는 작년을 제외하고 매년마다 여름캠프에 적극 참여해왔고 참여 후에는 반드시 느낀 소감을 그린엔젤을 대표해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캠프 참여 두 달 전 입은 부상으로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바람에 남들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며 느린 걸음걸이로 바라본 숲의 모습을 수기로 적고자 합니다. 이 체험 수기는 다른 누구보다 한 걸음 더 Slow해진 숲체험 캠프의 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체험 캠프 당일 아침, 수술 이후 매일같이 차고 다니던 보조기를 방 한구석에 놔둔 채로, 집결 장소로 향했다. 밤을 새우고 온 회원을 비롯하여 모두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결 장소에 도착해 대전의 국립대전숲체원으로 향했다.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산이었다. 이제 막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라 그런지 나무들은 모두 울긋불긋 저마다 월동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작년 캠프에 참가하지 않았던 나는 오랜만에 만나 모두가 반가웠고 잠시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뒤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다. 대전숲체원에서 하는 활동은 두 가지로, 처음에는 가볍게 숲 전문가와 함께 산을 동행하면서 산을 몸으로 느끼는 활동이었고, 두 번째 활동은 산 곳곳에 있는 미션 장소에서 퀴즈를 확인하고 해답과 함께 도장을 찍어오는 오리엔티어링 활동이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숲 전문가와 함께 했던 첫 번째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산속에는 다양한 자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직접 나뭇잎의 향을 맡고, 나뭇가지를 씹어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지 체험을 해보니, 자연에 대한 신기함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최근 집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일까. 나뭇잎 하나라도 더 만져 보고, 발에 느껴지는 흙의 감촉을 생각하며, 내리쬐는 빛의 따스함을 느끼면서 걸었다. 아픈 다리





였기에 남들보다는 조금 느렸지만 걸으며 마주쳤던 식물들을 그만큼 더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오리엔티어링 활동이 시작되었다. 숲 전문가와 숲을 구경하면서 보았던 표지판에 적혀있던 문제와 그에 대한 해답, 그곳을 다녀왔다는 도장을 찍어오는 활동이었다. 오리엔티어링 시간이 되자 각 클럽은 조별로 인원을 나누기 시작했고, 팀이 결성된 회원들은 서둘러 지도에 표시된 표지판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모두가 있던 자리에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남들처럼 달릴 수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었던 나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광장 주변에 있던 식물, 입구에 있던 나무, 셋노랑계 물이 든 은행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늘은 높고 파랗으며, 산은 노랑과 푸른색 물감을 뿌린 듯 수채화를 이루었다. 조금 전까지 들리지 않던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도 들려왔다. 거기에 해맑게 웃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돌 위에 앉아서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밑창이 많은 신발로 산길을 다시 걷고 있자니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고, 서서히 오리엔티어링을 하러 갔던 참가자들이 광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어깨 너머로 회원들이 적어온 답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무의 이름, 국립대전숲체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환경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까지도. 그중 놀라웠던 것은 최근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탄소발자국의 개념을 아는 참가자들이 있다는 점이였다.

***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 및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의미한다.

충분히 환경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접하기 힘든 단어였음에도 많은 참가자들은 탄소발자국에 대해 알고 있었다.

다음 활동을 위해 찾은 곳은 국립중앙과학관이었다. 최근 우주와 관련된 영화를 보았기 때문일까. 우주와 지구에 관심이 생기는 중이었다. 자연만큼이나 인간과 관련이 많은 분야가 지구과학이 아닐까 싶었다.

처음에는 우주에 관심이 많아 우주관으로 들어갔지만, 인류가 생겨난 뒤부터 함께 따라붙은 '환경오염'이라는 것에 점차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시간 평화롭게 유지되어오던 지구가 인류가 나타나면서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된 인류의 사냥으로 동물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전숲체원을 방문한 직후라 그런지, 적혀있는 설명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다.

대학생이 되기 전,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에서 자라왔던 나는 산과 호수에 많이 가보았다. 그렇기에 대전숲체원에서의 산이 반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속초의 설악산과 대전숲체원의 다른 점이 있다면 숲체원의 산길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류가 생기고 지구는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했다고 한다. 개발로 인해 산은 사라지고 터전을 잃은 동물은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것은 좋은 변화가 아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세먼지도 점차 심각해지고, 자연에는 점차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다행하게도 요즘 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재활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탄소발자국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났다. 중고용품 거래가 하나의 유행

이 되고, 제로웨이스트 삶을 실천하는 소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환경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지구에 더 큰 좋지 않은 변화가 오기 전에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깨우쳐준 숲체원캠프가 되었다.

판타지 소설이나 만화에 가끔 등장하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현실에서도 나오기 전에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서둘러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정화를 주요 봉사활동으로 삼고 있는 그린엔젤의 목표는 항상 자연을 원래상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며, 그것이 내가 그린엔젤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이다.





2021 대자연사랑 숲체험캠프

자연과 과학이 어우러진 캠프를 다녀오다

| 글 안성미 자연사랑 회원

대구의대학교 대학생 동아리인 자연사랑에 소속하고 있는 친구가 저에게 “캠프가 있는데 같이 가보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며 2021 대자연사랑 숲체험캠프 프로그램 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자연에서 힐링을 하고 싶었고, 때마침 프로그램 구성이 좋았던 숲체험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당일 이른 아침 버스에 몸을 싣고 경산에서 출발하여 국립대전숲체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탁 트인 전경과 자연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숲체원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보았기에 이에 대해 무지하였지만, 개회식을 통해 숲체원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개회식을 마치고 야외로 나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 간단한 몸풀기 체조를 했습니다. 그 후 숲의 구성요소와 전래를 알고 오감을 통해 숲을 체험하는 활동인 ‘오감만족 숲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잘 가꿔진 길을 걸으며 직접 풀 냄새를 맡아보고 나무를 씹어보기도 하며 길라잡이를 해주시는 해설사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길을 걷는 내내 흥미롭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점심시간을 가졌는데 점심메뉴는 콩나물밥, 배추김치, 된장국, 오이무침, 샐러드, 버섯튀김, 꿀이었습니다. 자연에서 나고 자라는 재료로 만든 식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먹기 전엔 다소 심심한 식단일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그런 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배불리 점심을 먹은 후 지도가 그려진 미션지를 보고 원내를 이동하며 주어졌던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인 ‘오리엔티어링’을 진행하였습니다. 4인 1조로 팀을 이루어 30분의 시간 동안 14문제를 푸는 활동이었습니다. ‘오감만족 숲 길라잡이’에서 가지 못했던 길도 ‘오리엔티어링’을 통해 갈 수 있어 산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문제 내용은 지구, 환경보호와 관련된 캠페인, 환경문제 등과 ‘오감만족 숲 길라잡이’ 프로그램 진행 중 해설사님이 설명해 주신 나무들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7조였던 우리팀은 70점 만점 중 68점이라는 고득점을 받



으며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걱정했지만 다행히 열심히 뛰고 역할분담을 잘하여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체험장소인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자연사관, 인류관, 과학기술관 세 곳을 견학하였습니다. 과학관에는 이 밖에도 창의나래관, 천체관, 천체관측소, 꿈아띠체험관, 미래기술관, 생물탐구관이 있었지만 1시간이라는 시간제한으로 인해 이번에는 3개의 전시관 밖에 가지 못했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전시관도 방문하여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사관은 한반도의 자연사를 주제로 하여 한반도 땅덩어리와 그 위에 출현한 생물들의 진화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인 10억 년 된 화석과 25억 년 된 암석 등 당시 한반도의 자연사를 알려주는 진귀한 표본들로 구성되어 있어, 평소 흔히 보지 못했던 과거의 유물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익숙한 동물, 식물 등의 화석을 통해 그 당시의 환경도 볼 수 있어 친근하게 다가오는 면도 있었습니다. 인류관은 인류의 출현부터 현재 인류의 진화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진화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했던 장비, 소품 등의 역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빙하가 녹으면서 발견된 미라, 외치입니다. 비록 미라

의 모습이지만 외치의 외형, 키, 혈액형, 목소리 등을 재현하여 살아있는 외치를 보는 듯이 전시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학기술관은 근현대과학기술, 거대과학기술, 기초과학, 화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보실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주제마다 동감 있는 전시품들이 자리하고 있어 직접 체험하고 봄으로써 과학기술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자연, 인간, 과학의 조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관에서는 경사진 바닥과 벽에 붙은 거울이 있는 방이 생각납니다. 멀미를 일으키는 방이었는데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 방의 원리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이 방은 어떤 원리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 컨디션 약화, 장시간의 버스 탑승이 힘들었지만 이를 모두 잊게 해줄 만큼 알차고 즐거운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좋은 사람들이 있어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즐겁게 즐기다 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당일치기 캠프로 이뤄졌는데, 내년의 1박 2일 캠프는 어떨지 궁금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습니다.



2021 대자연사랑 숲체험캠프

늦은 가을에 마주친 숲과 사람

| 글 황효정 내추럴에코 회원

늦가을 국립대전숲체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중부권을 대표하는 산림복지시설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숲을 통해 마음의 건강과 안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숲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립대전숲체원에서 눈에 띈 모습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숲으로 진입하는 무장애데크로드가 있다는 점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코스에서 숲의 맑은 공기는 물론 숙박과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로 인해 방문객에게 힐링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국립대전숲체원에서는 체험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외에도 숲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청소년의 균형과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숲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숲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청소년 외에도 성인을 위한 산림교육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단체 산림교육에 참여하게 되었고 <오감만족 숲 길라잡이>와 <오리엔티어링> 체험을 했는데, 오감만족 숲 길라잡이는 숲의 구성요소와 유래를 알고 오감을 통해 숲을 체험하는 활동으로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





던 다양한 나무들과 열매에 관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삶과 숲이 가까이
에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숲을 걸으며 다양
한 식물을 마주하는 동안 특히 기억에 남은 나무가 비목나무로 나뭇잎을
찢으면 시트러스 향의 상큼한 냄새가 났으며 그 향기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나무를 경험했는데, 오
리나무는 5리마다 나무가 심겨 있고 제일 빨리 번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리나무를 따라가면 끝에는 마을이 나온다는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숲체원에서는 베어진 나무를 밑 부분이 썩어도, 곰팡이가 피더라도 그대로
두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오리엔티어링은 지도가 그려진 질문지를 보고 원내를 이동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모둠 활동으로, 도시에서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숲에서 뛰어다니며 질문을 풀고 스탬프를 찍으면 5
점, 스탬프만 찍으면 3점의 점수가 득점할 수 있었는데, 몰랐던 승리욕까
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소화
해 줘서 끝까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코스로 국립대전술체원을 떠나 국립중앙과학관
을 다녀왔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우주의 시작부터 생명
의 탄생과 진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신비로운 과학 이야
기와 현재까지 몰랐던 일상생활에서의 과학 등, 앞으로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과 5G기술까지 체
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은 신
비로움 그 자체였는데,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 이룩한 과학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학의 미래까
지 미리 느껴 볼 수 있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과학의 소중함을 느끼고 과거의 과학의
역사와 미래의 과학을 미리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문제와 생활 속의 작은 실천

| 글 성길제 대구지부 회원

요즘 TV 뉴스를 보다 보면 지구 온난화나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부쩍 늘어난 것을 느낀다. 예전에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많았지만 최근 들어 들려오는 뉴스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미 늦었다, 당장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친환경 제품 사용, 제로웨이스트 운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만은 아닌 것 같다.

아내는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대양을 뚝뚝 떠다니는 거대한 '플라스틱 수프'(저자 미힐 로스갸 아빙)의 존재나,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며 어선에서 폐기된 그물망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바다가 오염되고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집 식탁에 해산물이 올라오는 빈도가 크게 줄었을 정도다.

그런 아내가 작년 어느 단체에서 몇 개월 동안 진행한 아이스 팩 수거 및 세척 봉사를 도왔다. 크지 않은 단체라 아파트 한 군데씩에서만 진행되었지만 큰 아파트 단지 10군데를 매주 돌며 아이스 팩을 일일이 수거하고 세척해 필요한 곳에 나눔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수거함에 온통 비닐 포장된 젤(고흡수성 수지) 아이스 팩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종이 포장에 물로만 이루어진 아이스 팩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무언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역시 물건을 구매하여 소비하고 버려야 하는 현대인으로서 작은 노력이나마 더해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노력하는 소비자로서의 작은 바람은,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 때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서로 다른 재질을 합쳐서 만든 복합 재질 상품의 경우에는 서로 분리가 쉽도록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내가 우리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분리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재활용할 수 없었던 상품 포장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생수병 라벨을 잘 떨어지는 재질로 제작하거나, 아예 라벨 없이 출시되는 상품들이 반갑기 그지없다. 그전에 아예 생수병의 소비 자체를 자제해야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가게에서 주는 일회용품은 '받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안 받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싶다. 작은 컵라면 6팩을 사면 필요 없는 나무젓가락이 기본 포장으로 들어 있고, 멸균우유나 두유에는 일회용 빨대가 기본으로 붙어 있다. 나아가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사람만 편의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가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급격히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고, 이전에는 지구에 없었거나 없어도 괜찮았던 물건들을 우리의 편의를 위해 수없이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지구의 안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는 지구의 수명을 담보로 더욱더 편리한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밭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는 겨우 자정을 몇 초 남긴 지구의 시계를 돌리려 하고 있다. 반성과 행동은 훨씬 더 빨라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편의를 포기하고 지구에 끼친 해악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비건 카페 & 음식점 쌍푸커피숍 셰프의 단상

글 박영선 경기지부 문화부장, 쌍푸커피숍 셰프

안산에 드디어 비건 커피숍이 하나 더 문을 열었다! 이름하여 '쌍푸커피숍! '쌍푸'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중국어 발음이다. '행복커피숍'이라는 상호를 이미 다른 곳에서 등록해 쓰고 있어 아쉬운 마음 달랠 방도로 중국어라도 가져다 쓸 것을 의논, 이렇게 해서 탄생한 커피숍 이름이다. 우리 커피숍은 안산에 몇 안 되는 비건 커피숍이기에 문을 연 후, 안산에 있는 비건인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다. 비건 카페 쌍푸커피숍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산 바로 아래 건물을 지어 커다란 커피숍 통유리를 통해 사계절 자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 커피숍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네모 반듯한 2층 하얀 건물이라는 점. 이 두 가지 특징만으로도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직하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원두를 직접 로스팅 하는 로스터리 카페라는 점! 네 번째의 특징은 쌀빵을 직접 굽는 베이커리 카페이기도 하다는 점.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우리 쌍푸커피숍은 비건, 무오신채 채식식당도 겸한다는 점이다. 오픈 후 바로 많은 안산인들의 호응과 관심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커피숍의 위 다섯 가지 특징 덕분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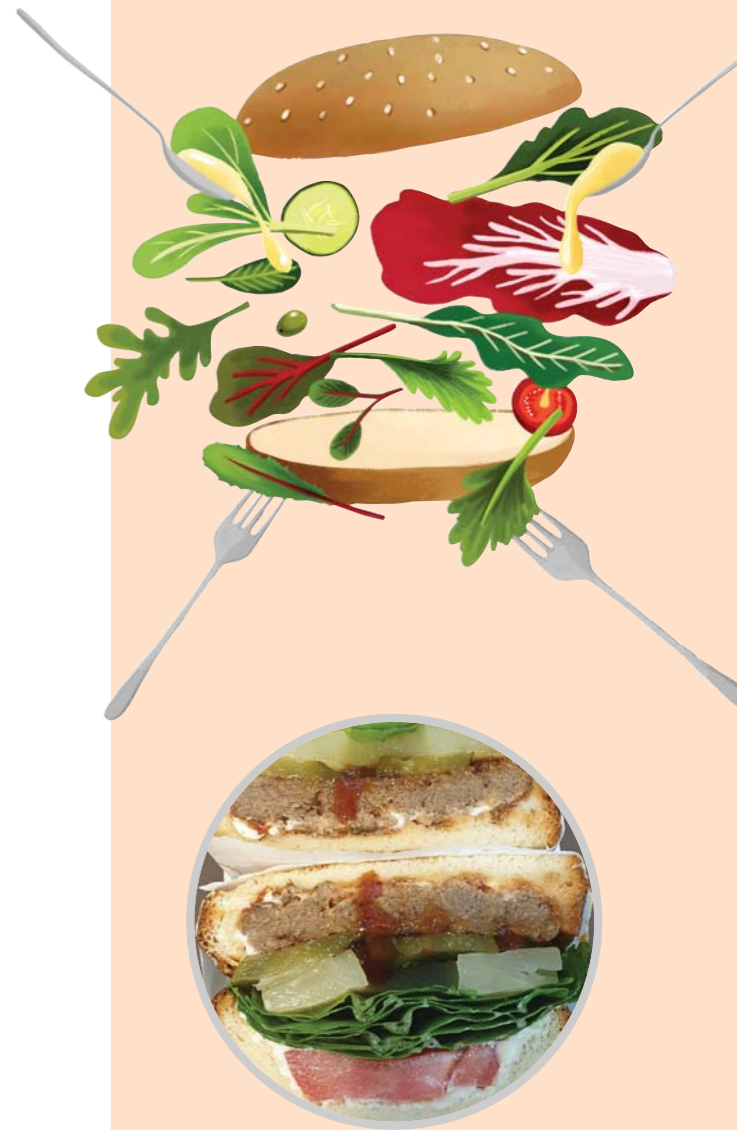


우리 커피숍 라떼류는 모두 두유와 오트밀로 제조된다. 나는 라떼는 우유로 내린 것보다 두유와 오트밀로 내린, 특히 우리 쌍푸커피숍에서 제조되는 라떼가 별다방의 라떼보다 훨씬 맛있노라고 자부한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보시라! 또 한 가지 추천할 만한 메뉴는 콩버거이다. 직접 구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쌀빵을 쓰는 데다. 또 여기에 직접 제조한 특제소스를 곁들여 콩버거를 만들어 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다.

나는 우리 쌍푸커피숍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 당연히 비건음식, 그것도 무오신채채식음식을 만들고 있다. 메뉴는 파스타 여섯 종류, 비건브리토, 덮밥류 두 종류, 샐러드, 기타 몇 가지 여름 메뉴들. 나는 전문자격증을 갖춘 셰프는 아니다. 그저 채식 음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음식에 뛰어든 사람일 뿐이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판매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 쌍푸커피숍에서 셰프를 담당하는 일은 정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한국 음식이 아닌 파스타를 만든다는 일은 무모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평소 파스타를 좋아하고 관심 갖고 있던 나는 쌍푸커피숍 오픈 계획을 앞두고 웬지 파스타를 팔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뛰어 들었다.

나는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무오신채 채식주의자 즉,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 등을 먹지 않는 채식을 하는 채식주의자이다. 요즘 서울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수많은 채식 식당 가운데 무오신채 채식 식당은 몇 군데 되지 않을뿐더러 게다가 파스타를 무오신채로 만드는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적부터 가족 내력 덕분에 무오신채채식을 하게 된 나로서는 평소 무오신채 채식식당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이런 나에게 기회가 찾아와 준 걸까?





아무튼 나는 무오신채 파스타와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에 사로잡혀 음식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채식 레시피들을 교과서 삼아 연구에 몰입, 나만의 무오신채 레시피를 만들어 나갔다. 다행히 반응은 좋았다. 전문 셰프가 아닌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표현해 주시는 손님들의 반응이 놀랍고 기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나는 여전히 음식을 만드는 일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맛에서도, 플레이팅에 있어서도 여전히 업그레이드해야 할 여지가 많다. 나의 목표는 전국의 채식인들이 몰려드는 것! 이를 위해 더욱 연구에 연구, 노력에 노력, 열정에 열정을 쏟아부어야만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채식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채식 산업도 더 커지고 있고, 더 전문화되어가고 있고, 더 대중화되어가고 있다.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공로를 지구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달리고 있는 많은 환경단체들, 환경전문가들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육식을 하는 것이란 걸 수많은 이들의 수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대중이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환경을 위한 행동은 지구를 구하고, 전 인류를 위하는 하나의 선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대열에 내가 발 하나를 들여놓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커다란 영광과 행운을 느낀다!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일이 있다. 채식 사업을 그저 채식 홍보라는 이름으로 만족하여 갈 것인가, 혹은 더 상업화된 사고로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 돈을 많이 버는 목표에 안주하여 달릴 것인가? 처음엔 음식을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 돌아보지 못했던 일들이 7개월째를 접어들며 하나, 둘씩 머리에 들어온다. 내가 구매하는 채식 재료들의 포장재가 플라스틱이 아니었으면, 내가 구매하는 채식 재료들의 탄소발자국이 길지 않았으면, 요즘은 그래서 고민이 늘었다. 채식 사업은 분명 지구온난화 등 지구 자연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그래서 나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해 지구 반대편의 지구촌 가족들이 자연재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시작하는 일인데, 내가 만드는 채식 음식이 좀 더 이런 가치를 지니고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고민들이다. 그러자면 탄소발자국이 긴 메뉴가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아 그런 메뉴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듯하다.

결론은 나는 채식주의자이고 채식을 만들어 널리 전파하는 사람이다! 또 나는 지구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양심이 즐거운 먹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 한다! 나의 행동 범주가 넓진 않지만, 지구를 위하고, 인류의 복지를 위한 대열에 발 하나를 들여놓고 함께 가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기쁘다! 게으르고 나태한 가짜 나를 쓰러뜨리고 더 부지런하고 열정으로 가득한 나를 일깨워 더 맛있고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한 채식음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련다! 지구를 망가뜨리는 육식을 우주 밖으로 쫓아내자!



2021 대자연사랑산악회 활동 발자취 다시 내디뎠보는 한걸음

글, 사진 이일봉 대자연사랑산악회 산대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부터 산악회 활동이 쾅쾅 묵이는 바람에 이 지긋지긋한 난리가 빨리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건만 큰 진전이 없어 애태우고 있는 가운데 2021년 10월에 코로나가 조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산악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2021년 세 차례 산행에 대해 차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1. 10월 정기산행

- 일시 및 장소 : 2021. 10. 30.(토), 성암산(472m)
- 코스 : 옥수골 주차장 - 체육시설 - 솔밭정 - 만보정 - 옥수정 - 봉암사 - 옥수지 - 원점회귀
- 거리 및 소요시간 : 6km, 3시간 40분 소요
- 참석자 : 13명

오랜만에 재개하는 첫 산행인지라 오랫동안 산행을 하지 못한 회원들을 감안해 몸풀기로 대구 시내에 있는 그다지 높지 않은 수성구의 성암산을 택해 공지하였다.



당일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약속한 주차장에 반가운 얼굴들이 한두 명씩 나타났다. 오랜만에 실외서 만나는 얼굴들이라 그런지 마치 수십 년 헤어졌다 만난 이산가족 상봉만큼이나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몸풀기 후 출발하였다. 날씨도 산행하기에 좋았고 높이도 나지막한 산이었지만, 코로나로 몇 년 만에 처음 산에 오르는 분들도 계셔서 초반의 몇 분 동안은 힘든 표정이 역력하였다. 40여 분을 올라 첫 능선인 '솔밭정' 쉼터에서 간식으로 휴식을 취한 뒤 '만보정'을 향해 가는데, 한의대 대학원에 근무하시는 회원인 아빠와 함께 온 초등 2학년생 아들이 시종일관 선두에서 잘 가는 바람에 꼬마에게 일일 산대장을 맡겼다. 꼬마 산대장의 선두 하에 전원이 다음 정상을 향해 힘차게 올랐는데, 이제 다들 몸이 좀 풀렸는지 가파른 깔딱 고개를 오르면서도 수다가 끊이지 않았다.

정상 이후 능선길을 가노라니 그제야 산 아래 열린 단풍이 쭈스러운 듯 방긋 인사를 나눴다. 이곳 가을은 한 주는 더 지나야 제법 짙은 색의 단장으로 치장할 것 같았다. 1시간 20분 만에 '만보정'에 다다라 단체 사진도 찍고 간식을 나눠 먹고는 다시 길을 재촉해서 20여 분 만에 '옥수정'에 도착해 이내 하산길로 내려섰다. 한동안 가파른 하산길을 내려가며 바쁘게 서둘러 산 아래의 불암마을을 지나 포장길을 따라 공덕사에서 옥수지로 걸음을 재촉했다. 이미 1시가 지나고 있어 식당에서 식사한다고 간식만 챙겨온 회원들의 배를 위해 서둘러 줄 수가 없었다. 옥수지에서 마지막 휴식을 취한 뒤 곧장 공영주차장에 도착해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다.

2년 만에 재개한 산행이라 모두들 굳은 몸이 아우성이었을 것이다. 그간 변해버린 힘든 몸을 이끌고도 안산을 즐겨주시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산행이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식사 비용 일체를 부담해 주신 모 회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 11월 정기산행

- 일자 및 장소 : 2021. 11. 27.(토), 송해공원 둘레길
- 코스 : 송해1주차장 - 꿈나무사계정원 - 송해정 전망대 - 구름다리 - 출렁다리 - 금동굴 - 백세정 - 물레방아 - 1주차장 원점
- 거리 및 소요시간 : 7km, 3:30 소요
- 참석자 : 10명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전국노래자랑 '국민 MC 송해(94)의 이름을 딴 '송해공원'은 농업용 저수지인 용연지와 그 주변을 꾸며 5년 전 만든 공원으로, 최근 '달구벌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곳이다. 또한 이곳은 송해 선생님의 부인의 고향이기도 하다.

송해공원 주차장에서 10명이 모여 간단히 몸풀기를 하고 산행을 시작하였다. 주차장 뒤쪽의 나지막한 산은 초반부터 보기보다 가팔라 힘들었지만 모두 가쁜 숨을 내쉬며 20분 만에 능선에 도착하여 과일과 커피로 영양 보충한 뒤 마루금을 따라 완만한 능선길을 걸



었다. 우려와 달리 포근해서 산행하기 적합한 좋은 날씨 덕에 90여 분 만에 하산 지점인 '송해정'에 도착하여 용연지를 내려다보며 준비해 온 김밥을 나눠 먹었는데, 그 맛이 가히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였다.

식사 후 아래 구름다리로 내려가 송해 홍상과 함께 포즈를 취한 뒤 다시 못 둘레 테크길을 따라 걷다 만난 출렁다리에선 남자 회원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여회원들의 즐거운 비명과 함께 재미를 선사하였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단풍 아래에서는 모두들 떠나는 가을의 미련을 사진으로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길게 늘어선 테크길이 못 가장자리에 설치된 것이었기에 아래로 시종 호수를 바라보며 걷는 풍경은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이윽고 일제 강점기 때 금광을 캐기 위해 뚫어놓은 '금굴'에 다다라 입구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굴 안으로 들어서니, 각가지 화려한 조명 아래 신기한 구경거리가 많아 모두들 소풍 나온 애들처럼 구경하며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하였다.

다시 테크길을 따라 걷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백세정'과 주차장 주위의 풍차와 국화 전시를 구경한 뒤, 가까운 곳의 카페로 갔다. 각자 원하는 차를 주문하니 이번에도 모 회원께서 차값을 선뜻 쓰시는 덕분에 모두 잘 마셨기에 큰 감사를 드린다. 차를 마시며 즐거운 담소와 함께 다음 달 송년 산행을 의논하고, 하루를 즐겁게 잘 마감하였기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다음 달을 기약하였다.

3. 12월 송년산행

- 일시 및 장소 : 2021. 12 19.(일), 경북 청도 공암봉벽(孔巖楓壁)
- 코스 : 공암리 복지회관 - 거연정 - 전망테크(풍호대) - 직벽전망대 - 공암봉벽 휴게테크(반환점) - 원점회귀 - 송년회 겸 식사
- 거리 및 소요시간 : 왕복 3.2km (1:30 소요)
- 참석자 : 13명



이날은 몇몇 분의 오전 일정 때문에 부득이 오후 2시에 모여 트레킹을 하기로 했다. 시간이 되니 청도 공암리 복지회관 앞으로 반가운 얼굴들이 속속 모여 들었다. 찬바람이 제법 불긴했어도 산꾼들의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간단한 몸풀기 후 트레킹을 시작하였다. 마을을 벗어나 10여 분을 걸으니 눈앞에 거대한 악어 모양의 산이 호수인 운분호 한가운데에 고개를 내밀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 형상으로 펼쳐졌고 모두들 그 풍경에 압도되고 말았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잘 놓인 테크길을 걸으며 앙상한 가지의 나무들을 보노라니 가을에 단풍이 절정일 때 오면 호수와 단풍의 조화가 한 폭의 절경일 거라는 확신이 들어 내년 가을에 재차 오기를 약속했다. 조금씩 가팔라진 산길을 따라 능선으로 올라서니 전망대가 나타났고,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에 모두들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삼삼오오 사진 속에 추억을 담고선 다시 정상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10여 분을 오르니 드디어 정상인 악어 머리 부분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곳에선 사방으로 에워싼 큰 산들 아래 운분호가 고요히 펼쳐진 가운데 운슬이 빛나고 있는 한가로운 풍경이었다. 정상 조금 아래에 있는 용혈(龍

穴)은 오랜 옛날에 용이 이 구멍으로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있어 찬찬히 살펴보면 바람이 너무 세서 간식 먹는 것을 포기하고 하산하다 중간에 바위 가람막이 있어 그곳에서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이윽고 하산을 완료 후 근처 15분 거리에 있는 사찰 짜장 전문인 강남반점으로 가 식사와 함께 이광조 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산악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조촐한 송년행사가 이뤄졌다. 각자 덕담을 한마디씩 곁들인 가운데 산대장으로부터 내년 산행 계획을 듣고, 끝으로 준비한 배낭에 걸고 다닐 수 있는 휴대폰 파우치를 송년 선물로 나눠주며 송년산행을 마칠 수 있었다. 내년에도 대자연 산악회 발전을 위해 모두 파이팅!





2021 그린엔젤 임직원 워크숍 및 바다환경정화활동

갑자기 모여서 오히려 즐거웠던, 9월 궁평항의 추억

글 **현정훈** 그린엔젤 회원 사진 **천원섭** 그린엔젤 단장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잦아들기 시작한 9월, 그린엔젤 임직원들과 회원들은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일대로 워크숍을 떠나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바다 환경정화 활동을 다녀왔다.

처음 모임을 기획할 때는 행사의 규모가 이렇게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여름캠프 이후 공식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궁평항 인근의 작은 펜션 한곳을 이용하게 될 기회가 그린엔젤 임원진에게 주어졌다. 그리하여 우선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임원진 중심의 소박한 모임을 계획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름캠프 이후로 만남을 갖지 못한 회원들이 한 번이라도 더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는 임원진의 의견에 따라 회원들에게 참가 의향을 물었고, 회원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폭발적이었다. 참가 의사를 밝힌 회원들을 모두 모아보니 당초 계획했던 인원의 두 배가 넘었고, 임원진은 이번 행사를 공식 행사로 개최하기로 결정, 결국 '2021 그린엔젤 임직원 워크숍 및 바다환경정화활동'이 열리게 되었다.

회원들이 모이는 행사는 언제나 준비하는 과정부터 설레기 마련이다. 단장님과 임원진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가자들을 동선에 따라 배정하여 교통편을 준비하고, 회원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음식과 물품을 준비하는 등, 모든 회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모임을 준비하였다.

드디어 금요일, 선발대는 오전부터 텐트 등 야영 물품을 차에 싣고 2박 3일 동안 필요한 장을 보고 난 뒤 이른 저녁에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모임의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펜션 앞마당에 텐트까지 치고 나니, 야영 분위기까지 더해져 한층 더 운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후발대의 도착 일정을 확인하며, 저녁식사를 준비하였다. 그날 저녁 회원들은 모두 즐겁게 먹고 마시며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했다. 이후 후발대 회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중요한 한 가지,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단장님이 직접 끓여주신 라면이 천상의 맛이었던 것은 꼭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

식사 이후에 펜션 내부에서는, 임원진들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그린엔젤이 좀 더 자주 모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들을 더 모집해서 우리들의 활동이 좀 더 보람찰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든 임원진과, 참가한 회원들이 동의했다.

이튿날인 토요일, 아침식사를 마친 후 인근의 백미항 갯벌로 자리를 옮겨, 카약 체험, 갯벌체험과 함께 바다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오랜만에 바다를 마주한 회원들은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다시 만



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으며, 카약 체험을 할 때에도 모두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열심히 물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체험 중 바닷물에 단장님의 휴대폰이 빠져 망가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체험과 함께 바다환경정화활동을 잘 마무리하였다.

저녁에는 궁평항 어시장에서 장을 봐 온 재료로 푸짐하게 식사를 하였다. 둘째 날이 저물어가며 회원들은 이틀 동안의 즐거움을 되새겨보았다. 여름캠프 이후 언제 모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모임의 기회가 생긴 것이 매우 감사했고, 그렇기에 더욱 설렘이며, 함께하는 이틀간도 더욱 즐거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일요일 아침,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텐트를 걷고 짐을 정리하며 회원들은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각자 차에 올라타 작별 인사를 나누는 회원들의 얼굴에서는 아쉬움보다는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기대감이 떠올라 있었다. 꿈처럼 왔다 갔던 궁평항에서의 2박 3일, 그린엔젤 회원들은 이 추억을 두고두고 이야기거리로 삼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자연밥상'은 건강한 삶을 위해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활용한 맛있는 채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국내 최초채식 문화 매거진 월간 <BeGUN>과 함께 합니다.

대자연밥상

죽순과
죽순요리

이맘때가 딱, 죽순

‘우후죽순’ (雨後竹筍), 이 사자성어는 정말 유명하죠. 비온 후에 죽순이 팡팡 올라오는 것처럼 어떤 일이 한때에 많이 생겨남을 말하는 우후죽순.

사실 죽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도 모르고, 먹어보지도 않았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더라도 우후죽순이라는 말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듯합니다.

차분하게 내리는 봄비가 아니라 장마철 소나기처럼 봄비가 내리는 올봄의 날씨는 좀 적음이 안 되긴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자주 가는 전주 송천동 건지산 대나무밭엔 죽순들이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올라와 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왜 추측이냐면 죽순을 캐면 안 된다는 표지판이 대나무밭 입구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길 기어이 몰래 들어가는 죽순 캐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알고 보면 다 선량한 우리 이웃들인데 왜 이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이럴 땐 맘이 안 좋죠. 여하간 봄철의 반가운 친구, 죽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순은 대나무의 땅속줄기 마디에서 돌아나는 어린 순을 말합니다. 품종이 많아 그만큼 부르는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죽순의 종류는 맹종죽, 왕죽(왕대), 분죽(솥대), 오죽, 해장죽, 죽순대 등이 있습니다. 죽순을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는 순(筍)·죽태(竹胎)·죽자(竹子)·탁룡(籜籠)·죽아(竹芽)·죽순(竹孫)·용순(龍孫)·초황(初篁) 등이 있습니다.

사실 죽순에서 한문 순(筍) 자를 보면, 우리가 열흘을 순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초순, 중순, 하순으로 열흘씩 잘라서 부르고, 또 기독교 신앙에서는 40일을 사순이라고 부르는데, 죽순이 싹이 나서 열흘이 지나면 대나무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죽순이 하루에 1미터 정도 자란 기록도 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성장 속도죠.



수분이 대부분이면서 식이섬유, 칼륨 등이 많고 아스파라긴, 티로신, 베타인, 세린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한 죽순의 효능을 알아볼까요?

1. 장 기능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순의 풍부한 섬유질 성분이 장의 연동운동을 보조하여 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장에서 유익한 균이 잘 자라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합니다.
2. 동맥 경화의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죽순에는 콜레스테롤을 내리는 효과가 뚜렷해서 동맥 경화와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3. 고혈압 예방과 혈압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4. 단백질과 비타민B, C 무기질 등 질 좋은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5. 신경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어서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6.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7. 한의학에서는 죽순이 변열과 갈증을 해소해 주고 체액이 순조롭게 돌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순을 먹을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순에는 시아노젠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서 꼭 한번 삶아 독성을 없앤 다음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순은 캐낸 순간부터 산화가 진행되면서 떼고 쓴맛이 강해지고 수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리하기 전에 쌀뜨물에 담가두거나, 쌀뜨물로 삶으면 수산이 녹아 나와서 떼고 아린 맛이 없어지고 맛이 좋아지면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죽순은 생장 중에 있는 어린 식물이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양의 아미노산과 당질을 소모하고 맛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수확 후에 되도록 빨리 조리하거나 가공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의미에서 생죽순보다는 가공 죽순을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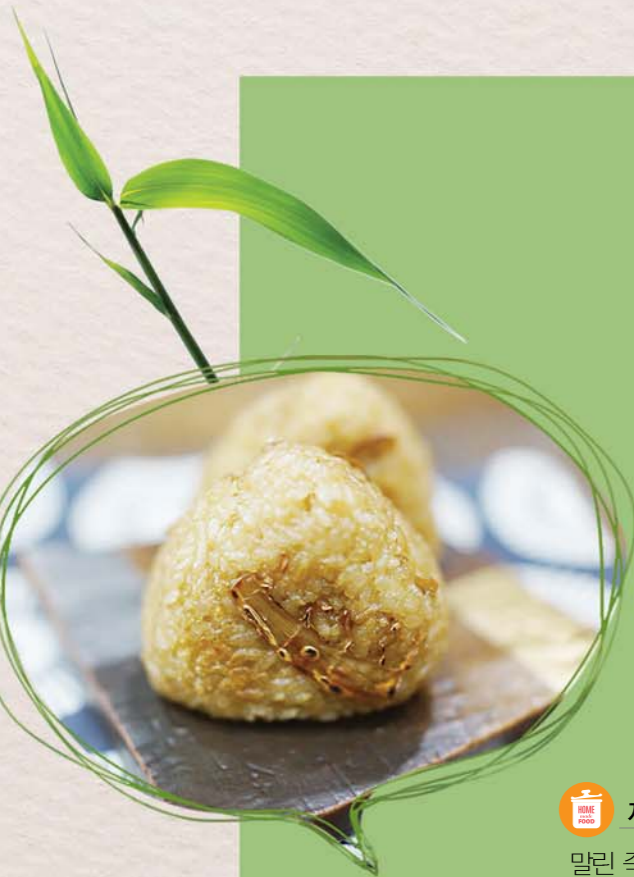
여러 가지로 효능이 좋은 죽순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찬 성질 때문에 복부가 차가워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체질적으로 손발이 차갑고 입술에 푸른빛이 도는 분들은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순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며, 고기에 없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깨가루와 함께 먹으면 들깨의 불포화지방산이 죽순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영양가가 높아지고 죽순도 더 부드러워져서 식감도 좋아집니다.

활용 요리 : 구운 죽순 주먹밥, 죽순밥, 말린 죽순 오픈 샌드위치, 죽순 겨자 무침





구운 죽순 주먹밥

대나무의 새순인 죽순은 다양한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요리에 많이 활용됩니다. 생죽순을 이용해 요리하고, 남은 부분은 말려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 볶음요리와 밥을 지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주로 어른들 요리로만 만들어졌던 죽순을 어린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주먹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료

말린 죽순 35g, 송이버섯 2개, 유부 1장
밥 : 현쌀 1컵, A 소스(물 200g, 간장 2큰술, 청주 2큰술)

만드는 방법

1. 말린 죽순은 끓는 물에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는다.
2. 송이버섯은 얇게 슬라이스하고, 유부는 끓는 물에 데쳐 기름기를 제거한 후 얇게 썬다.
3. 압력솥에 깨끗이 씻은 현쌀에 1의 죽순, 송이버섯, 유부를 넣어 잘 섞은 후 A의 소스를 넣어 압력솥 뚜껑을 닫는다.
4. 압력솥은 강불에서 압력이 차면 약불에서 15분 동안 밥을 하고, 불에서 내린다.
5. 완성된 밥은 삼각꼴 모양의 주먹밥을 만든 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노릇노릇 구워 완성한다.



재료

죽순 1개, 당근 1/3개, 표고버섯 3개, 쌀 2컵, 간장 들기름 조금씩

만드는 방법

1. 손질한 죽순은 쌀뜨물에 소금을 넣고 20분간 무르게 데친다.
2. 데친 죽순과 당근, 표고버섯은 잘게 썰어 불려놓은 쌀에 올리고, 다시마 한쪽을 올려 밥을 짓는다.
3. 완성된 밥에 기호에 따라 간장과 들기름을 돌려 섞어낸다.

죽순밥

당근, 우엉, 버섯 등 갖은 채소를 넣고 밥을 지어 간장에 비벼내면 그만입니다. 간단하게 죽순을 먹을 수 있는 건 밥과 함께 짓는 죽순밥입니다. 삶아서 밀 준비만 한다면 어렵게 없습니다.



말린 죽순 오븐샌드위치

죽순은 수분이 90% 이상이지만 단백질과 섬유질의 함량이 곡류와 육류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죽순의 단백질은 타이로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로이신 등의 아미노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양성분이 뛰어난 죽순을 이용해 간단하지만 영양가 가득한 오븐 샌드위치로 만들어 남녀노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았습니다.

재료

말린 죽순 30g, 가지 35g, 새송이버섯 1/2개, 줄기콩 4줄, 로메인 40g, 곡물빵 2장, 페페론치노 3개, 방울토마토 3개, A소스(발사믹 1큰술, 올리브유 1큰술, 소금·후추 약간씩)
후무스 삶은 병아리콩 120g, 병아리콩 삶은 물 1큰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4큰술, 건조 로즈마리 1/2작은술, 레몬즙 2작은술, 훈제 파프리카가루, 소금·후추·올리브유 약간씩

만드는 방법

1. 말린 죽순은 끓는 물에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는다.
2. 가지, 새송이버섯은 0.5cm 두께로 어슷 썰고, 방울토마토는 4등분 한다.
3. 줄기콩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살짝 데친 후 4cm 길이로 어슷 썬다.
4. 올리브유 두른 팬에 페페론치노를 볶아 향을 낸 후 1의 죽순을 넣고 볶아준다. 소금, 후추로 간을 한다.
5. 가지, 새송이버섯은 그릴팬팬에 소금, 후추로 간한 후 굽는다.
6. 방울토마토는 4등분 한 후 A소스에 버무린다.
7. 후무스는 겨량 후 믹서에 곱게 간다.
8. 곡물빵에 후무스를 두툼하게 바르고, 그 위에 훈제 파프리카 가루를 살짝 뿌려준다.
9. 이어서 가지-새송이버섯-로메인-토마토, 죽순, 줄기콩을 차례로 올려 완성한다.



죽순 겨자무침

톡 쏘는 겨자소스에 죽순을 버무려 냉채처럼 시원하게 즐깁니다. 아삭한 식감도 재밌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더해 다양한 식감으로 누리 봅시다.

재료

죽순 1개, 대추 2알
겨자소스 연겨자 2큰술,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매실액 또는 오미자청 1큰술, 설탕 1작은술

만드는 방법

1. 손질한 죽순은 쌀뜨물에 소금을 넣고 20분간 무르게 데친다.
2. 죽순을 길쭉하고 얇게 썰어 준비하고, 대추는 씨를 제거하고 채를 썬다.
3. 준비된 재료를 접시에 담고 소스를 섞어 그 위에 두른다.



대자연차생활

천산설연

글 오영환 푸른치문화연구원 원장

천산설연은 혹한의 기후와 부족한 산소의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신비로운 꽃이다. 신기에 가까운 효능이 입증되어 설산에서 얻을 수 있는 약초 중 최고로 친다. 고대 중국 문헌 중에는 진나라 때 '목천자전(穆天子傳)'에 '천자가 왕모에게 불로장생약을 구하자 왕모가 천산설연을 구하여 주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사천중약지(四川中藥誌)'에는 '추위와 기침을 없애고 피를 보충하고 자궁을 따뜻하게 하며 생리불순과 자궁출혈을 치료한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천산설연은 높은 산에서 자라며 효능으로는 한기를 없애고 양기를 북돋우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며 허리와 무릎을 낮게 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최상이다.'라는 대목도 있다.

천산설연(이하 설연)은 꽃 한 송이가 5인분이며 그 자체 효능이 높고 귀하여 평생에 한 번 만날 수 있어도 큰 행운이다. 꽃은 싹이 트고 5~8년이 지난 7~8

월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 꽃이 크면 클수록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다. 뿌리, 줄기, 잎에는 식물성 염기, 케톤류, 휘발유, 스테로이드, 다당 등 다양한 환원성 성분을 갖고 있다. 꽃봉오리에는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있어 생리작용, 혈액순환과 함께 약해진 음기를 보충하고 양기를 돋우는 효능을 나타내며 한랭 증세 개선 효과가 있다. 신강(新疆) 지역에 살고 있는 장족(藏族)의 말에 의하면 설연은 암수 두 종류가 있는데 암컷은 생으로 먹을 수 있고 단맛이 나며 수컷은 쓴맛을 지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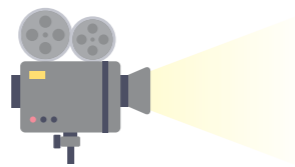
설연 한 송이와 청차 방식으로 만든 차 2g을 함께 넣고 열탕으로 우려 마신다. 쓴맛 속에서 순하고 부드러운 맛을 안겨준다. 맑고 청아한 맛이 입안에 짝 찬 느낌을 준다. 맛과 향이 독특하고 귀해 마음 깊이 닿는다.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방법 가운데 류머티즘성 관절염, 오십견, 노화로 인한 허리 통증 등에는 설연 20g, 구기자 10g, 홍화 10g을 소주(증류주) 2.5ℓ 에 밀봉하여 15일간 두었다가 자기 전 소주잔 반잔 정도를 마시면 혈액순환까지 좋아진다. 신장에 기를 보충할 때는 설연 5g, 구기자 5g, 홍화 3g을 넣고 약한 불에 2~3시간 닭을 찌 먹거나 소주(증류주)를 갖고 담금주로 만들어 반 잔씩 마셔도 좋다. 남성의 성기능 장애에는 설연 6g, 당귀 3g, 구기자 10g, 노차 2g을 넣고 끓여 마시면 좋다. 주의할 것은 임신부는 설연을 먹으면 안 된다.

설연을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소원성취를 하게 되고 장수한다고 전해진다. 설연은 국제보호식물 이어서 야생을 만나기는 어렵다. 지금은 인공으로 재배한 것도 있다. 약효는 야생만 못하겠지만 약용의 가치는 동일하다.



대자연산책

환경을 생각하게 해준 영화를 소개합니다



인간의 환경파괴 행위는 대부분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심각성이 바로 눈에 드러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임계점을 넘긴 부작용은 전 세계 사람들의 우려를 낳게 하고 대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몇 년 사이에 환경을 보호하거나 자연 훼손 행위를 막으려는 노력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동아리 '자연사랑'은 각자 환경이나 자연과 관련된 미디어를 시청하고 그 감상문 쓰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 자연사랑 임원 일동



Into the Storm (인투 더 스톰)

2014년에 개봉된 '인투더스톰(폭풍우 속으로)'은 토네이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재난영화다. 토네이도라는 극단적인 재난이 졸업식을 맞이한 학교와 타임캡슐 자료를 수집하는 두 형제, 그리고 토네이도 촬영 전문가 팀에게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막무가내의 재난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지만 그것이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토네이도 상황에서 각 그룹별로 벌어지는 갈등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탐색하는 재미는 재난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이 영화는 생사가 달린 긴박한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가족이나 함

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암시한다. 또 자기 욕구에 지나치게 충실하여 동료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인간의 이기성이 그려지고 있지만, 자신을 희생해가며 현장촬영을 강행하는 피트를 통해서 이기적인 인간의 가슴 한편에는 토네이도로부터 인간을 구하겠다는 보다 큰 사명감을 가진 영웅적 면모가 살아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 준다. - 유혜정 회원 -



WALL-E (월-E)

환경 관련 영화인 월-E를 시청했다. 이 영화는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을 주름잡는 픽사의 아홉 번째 작품으로, 《니모를 찾아서》를 만들어 명성을 과시했던 앤드루 스탠턴 감독이 2008년에 만들었다. 제작사와 감독의 이름만으로도 처음부터 큰 기대 속에 화면을 응시하게 되는데, 월-E는 "Waste Allocation Load Lifter - Earth class(지구 폐기물 수거·처리용 로봇)"의 약자라고 하니, 영화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청소 로봇인 것이다.

미래에 지구가 쓰레기로 가득 차서 더는 살 수 없게 되자, 인간은 청소 로봇을 남겨두고 우주로 대피하고, 그렇게 남겨져 자기 역할을 하던 월-E는 우주에서 탐사 로봇인 이브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짝을 찾은 월-E는 이브를 따라 우주로 가면서 다양한 모

험을 한다. 그 우주선에서는 로봇의 도움 없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을 겪은 후 이브와 월-E 덕분에 지구는 다시 새싹을 피우며 살아나게 된다.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는 사람들이 분별없이 지구에 쏟아버리는 온갖 폐기물이 하나하나 쌓여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지금 이대로 각성 없이 지구를 학대하다보면 영화 내용처럼 지구가 쓰레기 더미가 되는 사태가 반드시 오게 되지만, 그때 구세주처럼 로봇이 나타나 해결해 줄지, 마지막에 안겨준 위로처럼 지구에 다시 새싹을 피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똑똑한 인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절제하고 지구를 생각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섬뜩한 시사를 하고 있다. 무거운 주제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즐기는 속에 스스로 깨닫게 하는 영화의 매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 명작이다.

- 홍다건 회원 -

The Day After Tomorrow (투모로우)

이 영화를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까지도 투모로우와 비슷한 현상의 자연재해를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빙하시대가 찾아오면서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되고, 그 물이 얼어서 눈이 된 장면은 진짜 있을 법한 일이었기 때문에 놀라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지진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 인간은 그 무엇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손지현 회원 -



대자연 갤러리

'대자연갤러리'는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본 대자연의 사계절 신비로움,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대자연사랑실천본부 활동사진도 환영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 | 김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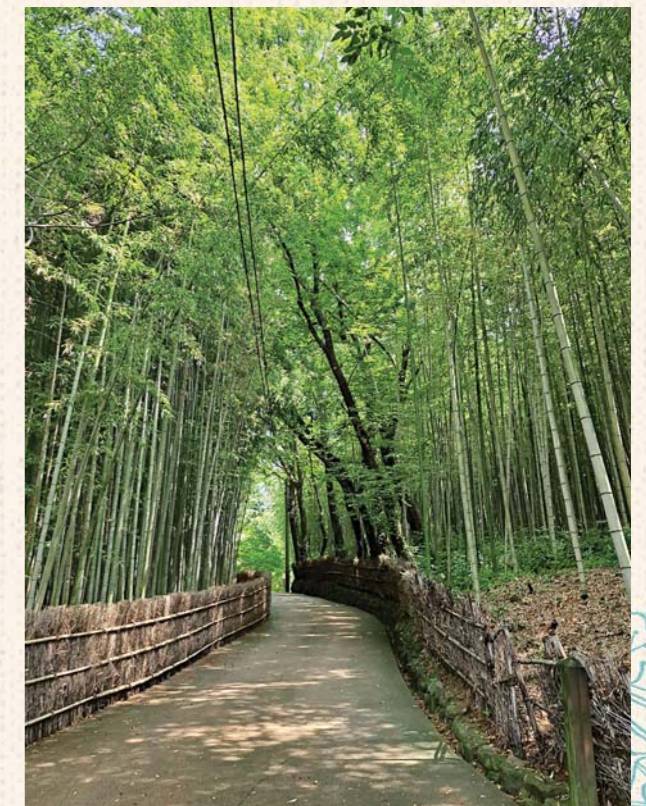
백양사의 가을 | 강항영



파란 도화지에 놓인 배 한 척 | 천원섭



체계산 출렁다리 | 이일봉



담양 소재원 | 이일봉



참여방법 QR코드를 통해 '대자연갤러리' 단톡방에 입장하여 소개하고 싶으신 사진을 공유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잡지 '대자연사랑'의 '대자연갤러리' 코너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진은 사진사명 / 사진명을 함께 기재하여 원본파일로 송부 바랍니다.



일출 | 김광수



홀랄라 | 김광수



송해공원 내 금굴에서 포즈 | 이일봉



자연을 품은 아파트 | 김광수



대자연쓰

대자연쓰는 『대자연사랑』 잡지 편집위원회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를 다양한 형식의 글로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주제 : 대자연사랑

너로 인해_정은진

너로 인해
나는 살아가, 고마워

너로 인해
나는 죽어가, 괜찮지 않아

안녕, 나는 지구야

관심_이동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간다.
그 우선순위 중에 우리는 환경을 몇 번째에 두고 있을까.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래세대_이광조

손자가 태어나 자라는 걸 보면서 지구환경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절실해지는 걸 느낀다.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지구환경과 인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자라야 할 부분이 많고, 그걸 위해서는 자연이나 환경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주 실질적이라고 생각한다.

다함께 실천_천원섭

대자연사랑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환경, 자연, 타인을 사랑함 등의 여러 단어가 떠오르지만 다 함께 실천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자연사랑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고 있겠지만 함께 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대자연사랑실천본부의 클럽인 그린엔젤 회원들도 나눔과 봉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대자연사랑을 실천하는 녹색 천사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함께 모여 실천한다면 아름다운 대자연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섬김과 공존_강창영

지구는 인류만의 대지가 아닌 모든 생명이 깃들어 사는 모든 존재의 집입니다. 나무와 숲, 바위와 계곡, 바람과 하늘, 동물들과 벌레, 그리고 당신까지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사는 형제입니다. 함께 공존하며 서로의 삶을 존중해 주고 섬길 때, 우리의 별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_김광수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며 돌아가는 곳도 대자연속이다.
대자연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터전이다. 이렇게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 역시 멸망할 것이다.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작은 생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앓과 실천_변귀남

코로나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빨리 탈피하고 싶고 부정적인 일들도 많지만 대자연에 감사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타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젊은 세대가 이 사실을 공유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자연사랑실천본부가 이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분발하기 바랍니다.

죄책감_이연경

대자연 사랑이나 환경을 생각하면 나는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이제껏 아무렇지 않게 살아오면서 행했던 나의 행동들이 지금 지구라는 환경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작년까지 나는 오랜 세월을 직장에 다녔고 바깥활동이 주가 되다 보니 사실상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적은 편이었다. 그러다가 퇴직을 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용에 필요한 생수를 배달해서 먹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발생되는 엄청난 양의 빈 페트병을 처리하면서 귀찮음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이 많은 쓰레기들로 인해 지구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동안 그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정수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그나마 마음의 짐을 좀 덜게 되었다. 그 외에도 예스럽게 사용하던 작은 페트병 대신 개인 물병을 갖고 다닌다든지, 음식 쓰레기나 여러 종량제 쓰레기들을 버릴 때 귀찮고 힘들지만 구분해서 버림으로써 재활용의 범위를 좀 더 크게 해보려는 나의 노력이 작으나마 지구에 대한 죄책감을 덜려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웹툰과 만화를 읽으며 동물권을 생각하다

글 강민희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문학평론가



1. 달로 간 토끼

프로우르터 즈비흐트만(Floorije Zwigtman)이 쓰고 루드비흐 폴베다(Ludwig Volbeda)가 그린 『환상동물특급』에는 석가모니와 토끼 이야기가 나온다. 대강의 줄거리를 살펴보자. 석가모니는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설법하는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거처로 되돌아가다가 토끼를 만났다. 이 작은 동물의 눈에도 석가모니의 피로감이 보였던가, 토끼는 “세상에, 안타까워라! 어르신, 몸은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다. 석가모니는 힘들고 허기진다고 대답했고, 토끼는 먹을거리는 자신이 구해오겠노라며 불을 붙여 줄 것을 요청한다. 석가모니는 토끼의 요구대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인다. 그 순간, 토끼는 불 속으로 뛰어든다. 석가모니는 재빨리 토끼를 불꽃 속에서 구해 달에 올려둔다.¹⁾

석가모니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위해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든 토끼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했다는 점에서 고유한 세계를 갖는 하나의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동물원에 갇힌 동물, ‘반려’나 ‘애완’이라는 수식어를 단 타자화한 동물, 그리고 정육점에 매달려 있거나 앞으로 매달릴 비(非)인간(non-human) 동물이야, ‘동물’은 어떨까? 인간이 만들어준 세계에 살고 있으니 주체로 인정받지 못할까? 그렇지 않다. 동물에게도 고유의 존엄과 세계가 존재한다. 톰 레이건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물은 그 가치가 다른 존재를 위한 유용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 마냥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다루어진다. 즉,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한 채 다루어지며, 따라서 동물의 권리는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침해된다.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in Peter Singer (ed), in Defense of Animals, Oxford: Basil Blackwell, 1985, p24.

삶의 주체인 존재자는 고유한 가치고 있고, 그 가치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비인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즉, 인간의 가치가 고유하고 보호받아 마땅한 것이라면 동물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동물을 먹고, 사냥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동물실험을 하거나 털가죽을 벗겨 의복을 만들려 동물을 오락거리로 삼는 일을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규정하게 한다. 이러한 시선이 불편할 순 있지만, 인간

을 위해 동물이 마땅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동물을 대할 때 마주할 수 있는 도덕적 고려(moral consideration)가 선명한 덕분일까,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꾸준히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로 검색한 결과, 2021년 한 해 동안 ‘동물권’과 관련한 키워드는 357건으로 적지 않고, 비거니즘과 더불어 이른바 ‘핫’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그림1】 2021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노출된 '동물권'

2. 동물권은 만화와 웹툰을 타고

다양한 유형과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텍스트가 비거니즘과 이를 지향하는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지만, 비견이 직접 쓰고 그린 비거니즘에 대한 첫 번째 만화인 『나의 비거니즘 만화』—어느 비견의 채식 & 동물권 이야기(이하, 『나의 비거니즘 만화』), 『데이빗』 그리고 『아삭아삭 테이블』은 비거니즘을 선택하는 주요 동기인 동물권을 주제로 가치관의 형성과 실천, 그리고 비거니즘(지향)을 선택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일상의 고민을 접근성 높은 웹툰과 만화의 형식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 비거니즘과 동물권 보호를 주장하게 된 이유

『나의 비거니즘 만화』는 해시태그 “#나의비거니즘일기”에서 파생한 제목이다. 1인칭 화자인 ‘아멜리’의 채식과 동물권에 대한 생각을 보

여준다. 그녀는 비인간 동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비견이 되었다. ‘아멜리’는 ‘아멜리’는 “안녕하세요. 하하. 여러분, 혹시 ‘비견’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사실 전 몰랐거든요!”, “내가 비견의 ‘비’자도 모르던 시절”이라는 언급을 할 정도로 비거니즘에 무관심했고 무지했다.

그러나 우연히 TV를 통해 미식 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사회자가 “오늘의 요리는 바로~! 육즙이 팡팡 터진다. 고기의 황제 소고기!”라고 미식의 주제를 알리자 클래식 정장을 차려입은 패널들은 절제된 박수를 보냈지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모두 기름진 미소만큼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 “저는 안심이라 살치살 좋아해요.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풍미가 화아악.....”, “고기를 불판에 얹으면 자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은 바삭한데 속은 핏물이 촉촉하니. 카, 예술인 거죠”라는—대단히 일상적인—평가에 충격을 받아 비견을 지향하게 되었다. 핏자국 하나 없이 반짝이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소의 살점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낯설고, 격조 있게 대화를 나누지만, 소의 입장에선 여기서 오기는 대화가 무척 기괴할 수 있고, “소는 조각조각 살점이 되어서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탓이다. 그리고 “귀찮더라도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 슬퍼지더라도 다른 존재에게 고통 주고 싶지 않아서” 비견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아멜리’의 비거니즘이 개인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식주의자의 범주를 설명하고, 채식을 지향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한편, “비견, 페스코 등의 명칭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소통하기 편한 수단일 뿐”이라며 “중요한 건 채식을 다하는 각자의 마음이고 모두의 채식은 모두 ‘대’를 수 있고, “비거니즘은 삶을 가두는 틀이 아니라 나의 세계를 평화적으로 넓히는 ‘삶의 방향’이”라고 정의하는 등 논비견의 이해를 돕는다.

머리 가죽까지 벗겨진 라쿤은 여전히 살아있고, 의식이 깨어나는 경우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토끼가 의식이 있을 때 손으로 털을 잡아 뜯어냅니다. 이때 토끼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털이 뽑힌 토끼는 철장에 들어가서도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서 있지 못하죠.

—보선, 『나의 비거니즘 만화』 푸른숲, 2020, p.185



【그림2】 보선, 『나의 비거니즘 만화』 부분

털가죽이 벗겨진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벽에 기댄 토끼나 라쿤의 이미지는 그것이 아무리 '반화적'으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프라다, 샤넬, 버버리, 베르사체 등 유명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모피 사용을 줄이며 모피 산업이 축소되고, 밍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폐사, 살 처분되었다는 뉴스보다 한층 생생하다.

2) 인간의 말로 지성과 품위를 드러내는 돼지는 인격을 지니는가?

『신문』의 웹툰 『데이빗』은 보선의 『나의 비거니즘 만화』보다 한결 적극적으로 동물권에 관해 이야기한다. 적당한 크기로 태어나고 자라 언젠가는 도살장에서 돼지고기가 될 돼지 '데이빗'의 이야기다. 이 돼지는 다른 개체에 비해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폐기될 위기를 맞이하지만 농장주의 아들 '조지'의 생일을 맞아 인간 아이의 친구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문제는 '데이빗'에게 "조지, 이제 온 거야? 오늘은 좀 늦었네. 오늘은 학교에서 뭘 했

어?"라고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인간의 말을 하는 탓에 서커스에서 사람들의 눈요깃감이 된 그는 인권단체 '스피릿'을 만나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데이빗'은 "사람은 무엇으로 정의하는가?"를 묻는다면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사람으로서 칭찬받고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것을 모르기에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데이빗'의 의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명암이 확실하다. 인간의 말로 지성과 품위를 드러내는 돼지 '데이빗'을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쪽과 그가 자신의 인간성을 입증하려고 애쓰고 또한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외형이 돼지이므로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나누어 팽팽히 대립한다. 그리고 이 대립은 점차 확대되어 이베리카 대륙 전체가 인권, 정치, 종교, 매스미디어 등 이익 세력 간 암투 끝에 완전히 분열된다.

돼지 한 마리를 두고 벌이는 대립치고는 과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인간의 말로 지성과 품위를 드러내는 돼지를 돼지고기로 받아들여 도축하고, 요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인간의 조건이 무엇이나, '데이빗'의 질문을 '고기의 조건이 무엇이나?'로 바꾼다면 어떨까?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3) 어느 날, 정육점의 돼지고기가 아프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데이빗'이 도축돼 돼지고기가 됐다면 어떨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던 이 돼지는 고기가 되어서도 말을 할 수 있을까? 웹툰 『아삭아삭 테이블』은 이 그로테스크한 상상에서 시작되는 작품이다.

"그날 사고 이후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많아졌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교통사고 이후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 '마하'의 이야기다. 그녀는 살아 있는 동물뿐만 아니라 정육점에 걸려 있는 고기들마저 말



【그림3】 신문, 『데이빗』 부분

을 걸어오는 것 같아 육식에 막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이 부담은 머지않아



비거니즘의 실천으로 이어지지만 이 역시 여간 번거롭지 않다. '마하'는 직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마주칠 고기—가 말을 걸어오는 일—를 피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육식을 애호하는 '육식파' 남자친구 '현민'을 위하여 고기반찬을 준비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정육점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기들이 말을 걸어오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하'의 선택은 비거니즘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전개로 인해 『아삭아삭 테이블』은 비건 레시피북의 성격을 내재하게 된다.

동물권과 비거니즘, 그리고 고기를 이야기하는 상기의 세 작품은 각각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상대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감응력'의 환기를 통한 연결을 이야기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간 우리는 대체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감응력의 환기를 통해 연결된다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어진 안 되듯 동물에게도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동물권을 이야기할 때 함께 논의되곤 하는 동물과 인간을 다르게 대우하는 '중차별주의자'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환기한다.

3. 인간과 동물, 얽혀 있는 공감을 위하여

우리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동물이 먹거리가 되기 위해, 모피를 제공하기 위해, 또 '반려'나 '해원'이라는 수식어로 즐거움과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왔다.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나열하며 육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그래서일까, 동물을 도구화·타자화하는 견해는 오래되었지만 막상 문장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는 순간 적잖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인간에게 자신의 털가죽을 빼앗겨 고통스러워하는 라쿤과 토끼, 인간의 언어로 품위와 지성을 드러내지만 인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돼지, 아프다고 호소하는 고기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모습을 앞에서 "육즙이 팡팡 터진다. 고기의 황제 소고기"와 같은 말을 입에 올리기가 괴롭다. 이 괴로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동물을 타자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고 그들의 가치를 옳이 체감하기 위한 공감적 상상력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른 존재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인간 중심적 관점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매 순간 감안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하지만 공감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른 존재자를 존중하는 윤리적 관계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루엔이 말하는 '얽혀 있는 공감(tangled empathy)'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공감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다른 존재자의 경험과 반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더 넓은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인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당신이 얽혀 있는 공감을 마련하여 도덕적 상상력을 발전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앞서 살펴본 책들을 보며 찬찬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세계는 지금

글 이동민 대외협력 팀장

이번 대자연이슈 코너에서는 국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 이변 그리고 환경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아시아/ 대한민국] 전자영수증 발행 시 100원 탄소 줄이면 포인트 적립

한해 발행되는 종이영수증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128억 건(2018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1월 19일부터) 대형마트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시 100원, 세제·화장품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는 회당 2000원,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빌리면 회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컵을 반납할 때 현금 또는 카드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일회용 컵도 반환 가능합니다. 버려진 컵을 주워서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바코드와 위조 방지 스티커가 컵에 부착됩니다.

대상	요약내용	기준액
실시간 대금	최초 가입 후 최초 이상 실적 발생 시 지급	5000
전자영수증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회당 100 연말 1천
리필스테이션	세제·화장품 리필 시 1회용 용기 제거 시 지급	2000 1천
다이어리	백화점에서 다이어리 사용 시 판매 시 1회용 용기 주면	1000 1천
무공해차 대금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대금	5000 2만5000
친환경상품	그린카드로 친환경상품 구매	1000 1천
미양생애 실천(에너지·절수)	기후행동 1.5도 캠페인 실천 횟수 4회 참여	실적 및 상금
차량 환경부		news

[유럽/ 아프리카 세르비아 & 콩고민주공화국] 친환경 전기차의 두 얼굴

최근 친환경 전기차의 수요가 늘면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과 코발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굴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여러 인권 침해적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칸반도의 내륙 국가 세르비아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리튬 광산 개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풍부한 세르비아에 다국적 광산 회사가 리튬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시위대들은 리튬 채굴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75명으로 유럽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인도보다 열악한 세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발트 매장량 세계 2위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미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나온 독성 물질이 물속으로 녹아들어 광산 인근 지역의 기형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뿐 아니라 노동자는 보호장비 없이 중금속 코발트를 맨손으로 채굴하며 하루 고작 4달러의 임금(코발트 1kg = 약 70달러) 받으며 노동착취, 아동 노동 등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 미국] 100년 만에 최악의 토네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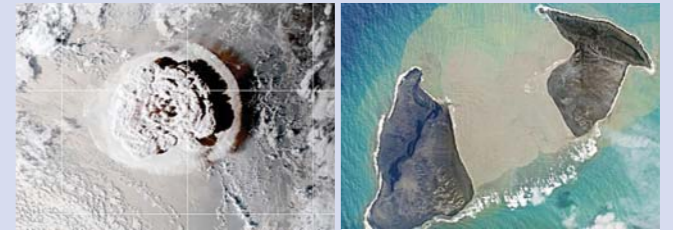


지난 2021년 12월 10일, 40여 개의 초대형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 6개 주를 지나가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약 9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실종자만 최소 100명이 넘어 앞으로 사망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당장 살 곳을 잃은 이주민들만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극심한 피해의 원인으로는 주로 봄, 여름 생기던 토네이도가 최근 30도에 이르는 이상고온 현상에 한겨울에 생겨 예측이 불가능했고, 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세아시아] 통가 대규모 수증 화산 폭발 그리고 해일, 과학계 '금세기 대규모 화산 폭발 가능성 경고'

지난 1월 15일(현지시각)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서부 해안 인근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과 해일로 섬 전체가 쓸대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일어난 쓰나미로 세계 곳곳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산재와 쓰나미로 뒤덮인 섬 인근 환경 때문에 공항·통신이 모두 마비되어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을 지연시키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과학계에서는 과거 화산 폭발 시점 등의 통계를 볼 때 한 세기에 한 번꼴로 전지구 기후에 영향을 줄 정도의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낙진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남아메리카 / 브라질] 동부지방 집중호우, 남부 지방은 가뭄? 이상기후로 곡물가격까지 요동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브라질 동부지역 집중호우로 이재민 13만여 명 발생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한 달 강수량만 해도 평년의 6배 달하는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콩, 옥수수 주산지인 남부, 중서부 지역 가뭄으로 몸살입니다. 약 10조 원의 손실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곡물가격 급등하고 아라비카 커피 재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기후의 원인은 라니냐 현상 이로 인해 날씨를 더 건조하고, 더 뜨겁게 했습니다.



다도의 평화로움을 전파하는

사단법인 푸른차문화연구원

2020년 9월 잡지 대자연사랑 제10호부터 [대자연차생활] 코너에서 차 문화에 대해 알려주시고 계시는 오영환 푸른차문화연구원 원장을 모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오영환 원장은 차 문화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원을 개원한지 어언 26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만큼 깊고 향긋한 차내음이 물씬 풍기는 푸른차 문화연구원을 소개합니다.

답변 및 사진제공 | 오영환푸른차문화연구원 원장

사단법인 푸른차문화연구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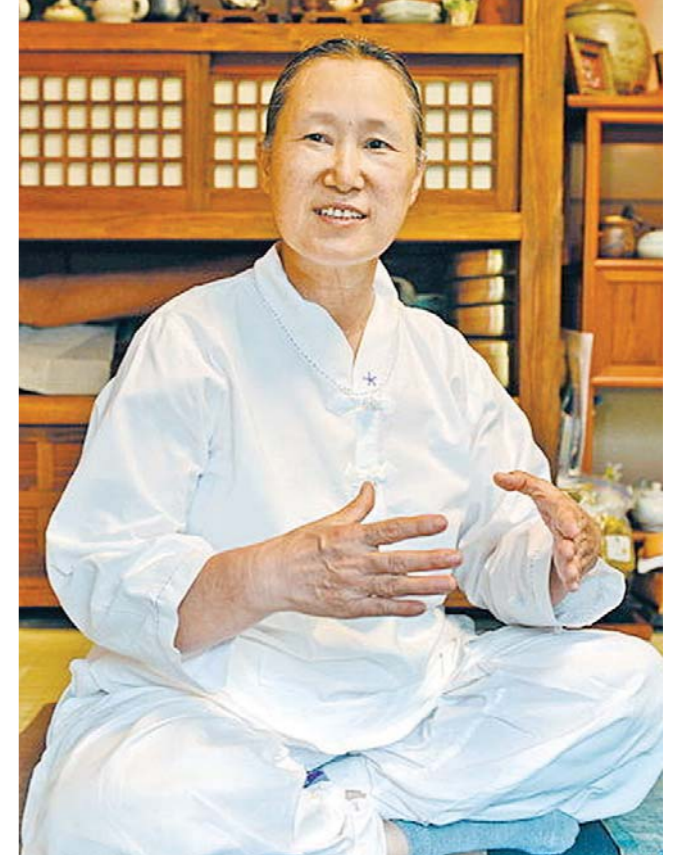
사단법인 푸른차문화연구원은 1996년 1월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도예절교육이며 2016년에 차 전문 인력 양성기관과 훈련 기관을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아 차 분야 강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차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원데이 티스쿨과, 다도 체험, 차 만들기 등 취미부터 전문적인 것까지 차에 관련된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차(茶)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2살 때 큰스님께서 주신 차 한 잔이 마음속 깊이 향기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삼십 대 후반 난모임에서 배근희 선생님을 만나면서 차에 관심을 가지고 심취하게 되었고, 차와 다도의 정신이 좋아 좀 더 깊게 파고들다 보니 어느덧 삼십 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22살에 차나무 씨앗 하나 품은 것이 이제 차 숲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차인들이 많아져 더 행복합니다.



연구원이라고 하면 차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한 일들을 해오고 있으신가요? 일반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로 한국 다도문화와 정신세계에 관해 탐구하며, 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차 교육

지도자 과정'과 '차 제조사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차가 좀 더 맛있게 혹은 기능적으로 좀 더 뛰어나게, 몸이 흡수를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20년 넘는 세월을 함께 걸어온 차우들과 다양한 차를 만들고, 마셔보고 하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대중을 겨냥하여 시원하게 될 차가 그 결과들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커피 문화 확산으로 인해 우리 차 문화가 점점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나라 차 문화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차는 커피와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음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문화적으로 융성하게 되는 데에는 매 시절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이며 쇠락하는 것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많은 이들이 찾아주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젊은이들을 겨





냥한 찻집들이 새롭게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좀 더 대중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보수적인 이미지, 고급적인 이미지나 가격 면에서 좀 더 낮아져야 하는데 아직 그 간극을 좁히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장님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인 이곳이 최근에 재개발로 인해 보금자리를 이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 이전하는 공간과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에 완성하여 13년이 되었지만 벽돌 하나하나마다 손이 간, 정이 담백 든 공간이라 너무 이쁩니다. 그러나 누에 비유했을 때, 연호동 공간이 4평에 든 고치라면 수성구 삼덕동에 신축하고 있는 차불지가(茶佛之家)는 5평에 든 누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라도 달래가며 새로운 꿈을 꾸어 봅니다.

새로운 공간 역시 협소하지만 일지암을 복원하여 한국의 전통 차실을 만들고 내부에는 동다송도관으로 꾸밀 것입니다. 1층은 차 제조 시설을 갖춘 공간이 될 것이며, 2층은 차 교육전문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3층은 진여차실과 차가 든 항아리 300여 개가 전시된 차불지가(茶佛之家) 박물관으로 자아견성 명상을 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 심평과 차를 보관하는 차 보고가 마련됩니다. 4층은 강사들의 교육 상담실 내지 티스쿨 체험실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앞으로 푸른차문화연구원(또는 원장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으신가요? 본 잡지에 기고해 주시고 있는 [대자연 차문화] 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사실 앞의 질문들에서 미래의 계획들을 대부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하자면, 가깝게는 새로운 차실이 지어질 것이고 이 차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시도될 것입니다.

저희 푸른차문화연구원에는 기초 신입반 수업도 있고 다도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하여 편하게 다양한 차를 마셔보는 수업, 원데이 스쿨, 체험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취미 수업들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녹차, 청차, 백차를 비롯해 무차, 국화차, 쑥차 등 대용차들까지 만들고 있는데, 현재보다 좋은 시설에서 생산량을 늘려 다양한 차를 좋은 가격에 시판할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 차가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푸른차문화연구원은 차를 좋아하거나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오셔서 차와 함께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푸른차문화연구원

☎ 053-754-1110

📍 대구 수성구 삼덕동 71-2 푸른차문화원(2022년 7월 재개관)

본부 소식



2021 대자연사랑 숲체험캠프

11월 13일 대전의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숲체험 캠프가 있었다. 43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의식을 높였으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기술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도 했다.



잡지 대자연사랑 온라인 편집회의

2월 16일 제13호 편집회의 및 제14호 기획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2022 온라인 정기총회

제12차 정기총회가 2월 26일 개최되었다. 전염병 방역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총회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대의원 00명이 참석하여 전년도 결산안과 금년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한 9명의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지부 및 클럽소식



장기산행

대자연사랑산악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 해 10월 30일 대구 성암산 산행을 기점으로 11월 대구 달성 송해공원, 12월 청도 공암봉, 금년 1월 봉무공원 감태봉, 2월 함지산 산행 등 월례행사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다졌다.



워크숍 및 바다환경정화활동

그린엔젤 클럽은 경기도 화성시 백미항에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린엔젤 2021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카약과 갯벌 체험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백미항에서 바다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정기공연

내추럴에코 클럽은 지난 9월 11일 대구 시지 달구벌신협 6층 아트센터에서 제3회 정기공연을 실시했다.



개강총회

대구한의대 학생 동아리 자연사랑은 9월 27일에 온라인 개강총회를 개최하였다. 2021년 상반기 활동 내용 보고와 2021년 하반기 행사 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했다.



자원봉사 특강

대구한의대 학생 동아리 자연사랑은 10월 13일 경산시자원봉사센터의 채연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가치 있는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역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재능 결합 방법, 봉사활동 실시 방법, 봉사활동의 지속성 구축 방안 등이 다루어졌다.



런천미팅

대구지부는 대구한의대학교에서 10월 22일 1차 런천미팅으로 '봉사활동의 의의와 진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채연 사무국장을 초청하였고, 11월 26일 2차 런천미팅으로 '치유로서의 향기요법'이라는 주제로 힐링산업학부 박찬익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업사이클링 폐유리 석고방향제 제작

대구한의대 학생 동아리 자연사랑은 11월 10일 '재활용, 문화예술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미다미의 이동민 예술행정국장을 초청하여 의미와 필요성을 배웠으며, 업사이클링 폐유리 방향제를 직접 제작해보기도 했다.



빛물방아 채색활동

대구한의대 학생 동아리 자연사랑은 11월 19일 경산 옥산 2지구 일대에서 빛물방아와 하수구 주변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였다.



전환마을 프로젝트 참가

대구한의대 학생 동아리 자연사랑은 12월 4일 대구 행복날씨골공방에서 달성토성마을 전환마을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전환마을이란 마을 내에서 탄소제로 배출을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생활을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참가자들은 전환마을 여행, 전환마을예술워크샵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다.

인물 동정



대구지부 장호경 부회장, 법륜불자교수회 회장 취임

불자 교수들의 신행과 학술활동 및 전법활동의 중심인 법륜불자교수회 17대 장호경 회장의 취임법회가 8월 30일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봉행됐다. 법륜불자교수회는 지난 1988년 창립하여 32년간 60여회의 수련회와 140여 회의 성지순례회 및 불교문화의 만남과

저술활동을 통하여 불교 인문학 포럼의 개최 등으로 불교 위상을 높여왔다.



변정환 이사장, 학술대회 개최

2022년 1월 7일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11호관 105호에서 대구한의대학교 향산교양교육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대구한의대학교 설립자이자 명예 총장인 '향산 변정환 박사의 학문세계와 시대적 위상'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는 대구한의대학교 향산 변정환 명예총장의 학문세계와 시대적 위상을 다룬 학문 영역에서 조명하고 이를 통해 건학 이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광조 편집위원장, 신인작가상 수상 및 등단

이광조 편집위원장이 종합문예지 '문장(文章)'에서 신인작가상을 수상하며 수필가로 등단했다. 이광조 편집위원장은 계간 문장 2021년 겨울호에 수필 『나의 포대화상』 외 1편을 수록하며 제58회 신인작가상 수필 부문에 선정됐다.

회원알림

1. 대자연사랑을 아름답게 디자인 해주실 재능기부자를 찾습니다.

- 모집분야: 포토샵, 일러스트, 동영상 편집, ppt 등
- 모집인원: 0명
- 지원방법: inlakorea@daum.net 으로 간단한 본인소개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자원봉사점수 인정과 경력증명을 지원해드립니다.

2. 대자연사랑잡지 청년리포터 모집

- 모집분야: 취재, 촬영 글
- 모집인원: 지부별 0명
- 지원방법: inlakorea@daum.net 으로 간단한 본인소개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자원봉사점수 인정과 경력증명을 지원해드립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기부금공제혜택을 위해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안내

신한은행 100-031-315439 사단법인 대자연사랑실천본부
후원문의 E. inlakorea@daum.net T. 02-732-1359

대자연사랑실천본부 정기후원(CMS) 신청서

“자연과 조화되는 삶”

대자연사랑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아래 중 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카톡(ID:대자연사랑) / 이메일(inlakorea@naver.com) / 팩스(02-732-1357)

후원자 성명	휴대전화	
주 소		
이 메 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small>※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small>
후원금액	매월 <input type="checkbox"/> 5천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만원)	
은 행 명	예금주명	
출금계좌		
출 금 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0일 (미출금시 25일에 출금됩니다)	
위 정보는 후원을 위해 수집하며, 별도의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후원 종료 시까지 보관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안 함 <small>(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후원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습니다.)</small>		
CMS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금융기관명, 출금 계좌번호, 생년월일, 예금주명, 핸드폰 번호) 수집 및 금융결제원, 은행 등 금융회사(빌링원플러스)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안 함 <small>(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후원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습니다.)</small>		

*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따라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의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예금주)는 자동이체 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후원금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금주: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대자연사랑실천본부는 기획재정부 승인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성병 및 난치병 등을 역점 치료하는 한방의료기관

제한한의원은 5천년 민족의학의 전통을 계승한 3대 의가로 21세기 글로벌 한의원으로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다스리며 동시에 예방치료를 중시하는 심의로서 만성병 및 난치병 등을 역점 치료하는 한방의료기관입니다



원장 변정환

- 현재 (사)대자연사랑실천본부 이사장
- 현재 대구한의대학교 명예총장
- 현재 제한한의원 원장
- (전) 국제동양의학회초대·이대 회장
- (전)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전) 한국유교학회 회장
- (전) 국제 Lions 협회 한국복합지구총재협의회 의장

